研究論文

블라디보스토크 한인학교의 변동

1905-1922

이경숙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교육학 전공
loworld@hanmail.net

Ⅰ. 머리말
Ⅱ. 블라디보스토크 한인과 학교설립의 토대
Ⅲ. 민족주의와 한인학교의 발흥
Ⅳ. 러시아 동화주의 교육정책과 한인학교의 대응
Ⅴ. 러시아 혁명 후 혼재하는 한인학교들의 긴장관계
Ⅵ. 맺음말

이 글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21-B00147).

I. 머리말

조선의 학교는 이 마을 문화의 전당이다. 마을의 대다수 조선인은 아이들을 이 학교에 집어넣기만 하면 떳떳한 인간이 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 재일조선인에게 민족교육기관은 단순한 교육 일반으로서의 기관이 아니라 그 자체가 민족이자 상징이며 학대받아왔던 이국의 땅 이민족사회 일본에서의 작지만 결정적인 존재감을 주장하는 조선의 '작은 공간'이었다.[1)]

'조선의 작은 공간', 이 표현에서 해방 직후 민족학교를 대하는 재일조선인들의 특별한 마음가짐을 읽을 수 있다. 이국의 소수민족에게 민족학교는 민족문화를 이어가는 행위이기에, 사는 공간은 달라도 동일 민족국가 구성원들에게 해외민족학교는 특별히 주목받는다. 더구나 식민지 시기 항일투쟁과 밀접한 연관을 맺었던 우리나라의 민족교육운동은 독립운동가들의 행적과 함께 주목받아왔다. 식민체제에 편입된 조선에서는 민족교육운동이 산발적으로 남아 있어도 은폐되거나 억압받고 대부분 일찍 생명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반면, 조선과 인접한 간도와 연해주에서는 민족교육이 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었다.[2)]

지금까지 해외한인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역사 속에 묻혀 있던 많은 한인학교를 발굴해냈다. 그러나 흔히 학교발굴 연구들은 한인들의 교육열의와 설립된 학교의 규모는 알게 해주지만, 변동과정이나 폐교시점이 없어 마치 모든 학교가 동시에 견고하게 유지된 듯한 연속성의 이미지를 남긴다. 따라서 민족학교를 실제보다 과잉해석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일부 선행연구들이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인 몇 가지 사실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필요가 있다.[3)]

학교는 명멸한다. 학교도 사회조직인지라 사회와 함께 생명의 부침을 겪는다. 더구나 이국에서 설립된 학교는 부침이 더욱 심할 수밖에 없다. 이산상태의 소수민족들은 그들의 삶이 귀국 의지나 거주국가의 소수민족

---

1) 김덕룡, 『바람의 추억』(선인, 2009), 16쪽, 18쪽.

2) 김민남 외, 『간도의 삶과 교육』(사람대사람, 2009).

3) 이 글에서는 그 의문을 각주에서 논의 형태로 다루도록 하겠다. 각주의 논의 형태로 다루는 까닭은 연구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명백히 의심이 가는 사실들이지만 연구자 역시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고 추후과제로 삼고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책에 따라 언제나 변화 가능성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동하는 학교'라는 관점에서 해외민족교육을 보고자 한다. 변동의 관점에서 학교 역사를 살펴보면, 학교와 사회의 전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변동 속에서 한인학교들이 겪었던 난관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위기 속에서도 학교를 설립, 유지한 역사를 통해 오히려 당대 한인들의 교육열망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의 한인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의 변화를 시기 구분하여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인들의 학교, 즉 민족학교에 대해 살펴보자. 연해주 한인학교에 대해 관련 당사국들은 다양하게 대응하였다. 러시아에서는 민족적인 교육내용은 제거하고 같은 민족 학생들끼리 모아놓았다는 민족분리의 의미에서 민족학교라는 용어[4]를 사용하거나, 한인학교와 일본학교의 관계를 의식하여 민족 간 상호 적대감을 고취하는 학교라는 의미에서 민족학교[5]라고 칭하였다. 이에 반해 한인들은 조국독립을 위한 민족정체성 확립이나 실력양성운동의 일환으로 민족학교를 인식하였다. 일본은 친일성향의 학교를 설립하거나 지원하면서 한인민족학교를 회유의 대상으로 여겼다. 세 세력의 갈등과 공모로 한인학교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시대 상황에 따라 교육목표와 운영방식은 다르지만, 블라디보스토크의 민족학교를 기본적으로 한인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하고 유지한 한인학교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는 한인학교가 다양한 정치세력 속에서 항상 친민족주의적이지는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한다.

둘째, 연구지역을 블라디보스토크로 선정한 까닭은 지금까지 일제시대 해외민족학교 연구들이 간도지역 중심이었고, 몇 편의 연구[6]를 제외하고 연해주지역의 연구는 여전히 미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1차적으로 연해주지역 학교들에 대한 역사적 복원이 시급하다. 연해주지역은 19세

---

4) 이병조, 「러시아 프리아무르 한인사회와 정교회 선교활동(1865-1916)」, 한국외국어대학 박사학위논문(2008).

5) А.А. Торопов, 『Корей цы на россий ск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2』(Владивосток, 2004), p.314.

6) 김은영,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최초의 초등학교 계동학교의 민족교육과 운영」,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9); 정태수, 「망국 직후의 신한촌과 한민학교 연구」, 『한국교육사학』 13권(한국교육사학회, 1991), 253-309쪽; 이명화, 「노령지방에서의 한인민족주의 교육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집(한국독립운동사연구회, 1989); 이상근, 「노령지역에 이주한 한인에 대한 교육」, 『사학지』 28집(단국대 사학회, 1995), 449-496쪽; 천경화, 「노령지역에서의 한국인 민족교육운동」, 『논문집』 19집(부천대학, 1998).

기 초반 지리적 인접성과 더불어 일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정치공간으로서 한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 그중 블라디보스토크는 연해주의 중심도시였다. 블라디보스토크는 다수 한인들의 거주지역이자 독립운동기지이면서 세계의 세력들이 충돌하고 변화가 격심한 국제도시였다. 도시의 사회변화에 따라 블라디보스토크의 한인학교들도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그러므로 블라디보스토크는 한인학교의 변동을 관찰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계동학교와 한민학교만 연구되었을 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생성 소멸된 한인학교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그리고 한인학교 역사시기를 구분하고자 하는 것은 단절 없이 흐르는 물리적 시간에 특정 성격을 부여하겠다는 의지로, 이 글의 시기 구분 기준은 블라디보스토크의 사회변동과 이로 인한 한인학교의 변화이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러시아, 일본, 한인들 사이에 헤게모니 변동이 있었고, 그 변동은 한인학교에 영향을 미쳤다. 학교는 설립과 폐쇄, 경영 및 재정 주체, 교육 내용의 변화를 겪었다. 이 변화를 기준으로 이 글에서는 소비에트 정권 수립 이전의 블라디보스토크 한인학교들의 역사를 세 시기로 구분한다. 첫째, 1905년 이후 민족운동의 기운이 높아지면서 한인민족학교들이 발생한 시기, 둘째, 러시아의 동화주의 정책으로 한인학교들이 재편되고 조선어 및 조선어 교과서 사용이 금지된 1910년대 초중반기, 마지막 시기로 한인학교들이 격동하는 나누어보고자 한다. 이 시기 구분은 선행연구들의 분석과 대부분 같은 맥락 안에 있다.[7] 다만 블라디보스토크라는 지역특색이 부가되었을 뿐이다.

II. 블라디보스토크 한인과 학교설립의 토대

뜻있는 사람들의 자발적 운동이라 해도 재정과 교사, 교재 문제 등으로 학교의 설립과 유지는 언제나 쉽지 않다. 더구나 이국땅에서 소수민족학교를 설립하고 유지하는 일은 더욱 어렵다. 이국땅에 정착하려면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알아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 나라의 학교에 편입하는 것이 한결 낫다. 그럼에도 블라디보스토크의 한인들은 한인학

7) 천경화(1998)는 연해주지역 교육을 민족교육 부재기(1904년까지), 민족교육 실시 준비기(1905-1910년), 민족교육 발흥 및 활성화 시기(1911-1920년대 초반)로 구분하였다.

교를 설립하고 유지하였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뒤따라야 한다. 우선 한인들이 일정 규모를 이루면서 일정 기간 정착해야 하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이국에서도 민족적 교육을 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20세기 초반 블라디보스토크 한인들에게는 소수민족학교를 설립하고 유지할 충분한 토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러시아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블라디보스토크를 군사도시이자 행정도시로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한 비숍은 "새로움, 진보, 희망이 블라디보스토크 시민의 특징이다. 이것은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와 유사하다"라고 묘사한 바 있다.[8] 블라디보스토크의 활기에는 다양한 민족의 공존도 한몫 하였다. 러시아의 식민정책으로 유럽에서 들어온 러시아인, 중국·일본·조선에서 넘어간 아시아인, 그리고 토착민이 함께 섞여 있었다. 1883년에 30% 이상이 외국인이었고, 한인들도 상당수 있었다.[9]

블라디보스토크에는 국제도시로서 동서양을 잇는 철로가 있고, 조선과 일본을 잇는 항로도 발달하였다. 특히 1908년 최봉준은 준창호를 운영하여 조선과 블라디보스토크를 직접 연결하였다. 연해주 한인들은 러시아로 이주할 때 주로 조선 국경을 넘거나 배편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연해주 각지로 흩어졌기 때문에[10], 1907년 한 해 동안 블라디보스토크항으로 입항한 한인이 1만 6천여 명, 출항한 한인이 5천여 명이었다.[11] 이처럼 블라디보스토크는 조선과 지속적인 교류를 하는 곳이었고, 교류가 많은 만큼 이주한인들에게 조선은 심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여전히 가까운 곳이었다.

이주한인들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게 된 계기는 1869년 조선 북부의 큰 홍수와 한파 때문이었다.[12] 통계마다 차이가 있지만,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이주자들이 급증하면서 1910년 전후해서 적어도 1만 명 정도의

---

8) I.B. 비숍, 신복룡 옮김,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집문당, 2000), 216쪽.

9) David Eugene Habecker, "Ruling the east: russian urban administration and the chinese, koreans, and japanese in vladivostok, 1884-1922," University of Maryland (2003), p.164, pp.337-338. 1927년 블라디보스토크 민족별 인구를 보면, 러시아인 36%, 우크라이나인 26%, 한인 25%였다. 장은영,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한인 이주 과정과 거주 특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4), 31쪽.

10) 「伊藤博文 被擊事件 眞相調査及嫌疑者 搜査ニ關スル件」, 1910.1.17, 국사편찬위원회(www.history.co.kr) 제공(이하 '국편제공'으로 표기)

11) 현규환, 『한국유이민사(상)』(삼화인쇄출판사, 1976), 813쪽.

12) 이병조, 앞의 논문(2008), 75쪽.

한인이 블라디보스토크에 머물렀을 것이라 짐작된다.[13] 한인들 중에는 계절노동자와 일시거류자도 있었지만 정착민도 많았다. 1912년 신한촌 인구 중 독자적인 노동인구가 아닌 아동과 노인인구가 1/3 이상이었다는 점, 1923년 블라디보스토크 시내와 신한촌의 한인거류자 중 러시아 국적 취득자가 약 2/3라는 점[14]에서도 한인들의 정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주한인들은 한인촌을 이루고 있었다. 구한인촌, 신한촌(구한인촌의 이전), 동령, 마두애, 시와재, 진고자와 같은 한인촌이 있었고, 이 중 블라디보스토크 한인을 상징하는 마을은 신한촌이었다. 한인 대부분이 신한촌에 거주했고, 이곳에는 친일파도 있었지만 항일운동가들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던 항일운동의 중심지였다. 최재형, 이동휘 등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의 항일정신과 활동은 한인들의 일상 속에도 퍼져 있었다. 한인촌 주민들은 친일과 반일의 시선으로 외부자를 감시하거나, 한일병탄의 날에는 마을 전체가 불을 때지 않을 만큼 반일의 기운이 높았다.

표1-블라디보스토크 한인촌 인구

1907년 블라디보스토크 한인 인구			1923년 블라디보스토크 재주 한인 인구		
블라디보스토크	호수	인구(명)	블라디보스토크	호수	인구(명)
'카레스카야 슬라보드카' (구한인촌)	700	7,500	블라디보스토크 시내 및 신한촌	1010호	6,450 (귀화자 4,000)
'마도로스카야 슬라보드카' 인근 '돈욘'	50	450	동령(돈욘)	100호	680 (남 500, 여 180)
'메루제'	104	1,300	마두애(메루제): 호랑이언덕 맞은편	47호	560
'돈나미'	30	350	산류애	120호	315
일번천[一番河] 부근 '진고자'	20	300	일번천(일번하)	35호	195 (남 95, 여 100)
'에리게셰리드'	40	450	시와재 ('에리게셰리드')	25호	210
러시아 섬[露西亞島, 블라디보스토크 아래의 섬]	50	500	이번천(일번천보다 훨씬 북쪽에 있음)	40호	180
합계	994호	10,850(*)	합계	1,377호	8,590

• 1907년 자료: 현규환, 앞의 책(1976), 812쪽(* 현규환의 책에는 10,400으로 합산되어 있음)
• 1923년 자료: 「浦潮在住 朝鮮人人口及其他調査の報告の件」, 1923.8.11, 국편제공.

13) 현규환, 앞의 책(1976), 813-815쪽.
14) 《권업신문》, 1912년 12월 29일자; 「浦潮在住 朝鮮人 人口 其他 調査の報告の件」, 1923.8.11, 국편제공.

일반인들도 항일정신을 간직하게 된 배경에는 강한 한인네트워크가 있었다. 각 마을마다 한인들은 거류민회를 조직하였다. 거류민회는 귀화, 비자, 세금, 어업권처럼 생계와 직결된 문제를 해결해주었고, 사람들은 거류민회에 소속되거나 관련되어 있었다. 거류민회 외에도 많은 항일단체가 있었다. 성명회, 대한청년회, 청년교육회, 자혜부인회와 대한여자단의 통합 단체인 대한부인회, 부인독립회, 권업회, 노인단 등이 존재하였다. 이 외에도 상업활동을 위한 공동단체, 계동학교학부모간친회와 같은 학부모회도 조직되어 있었다.[15] 그리고 《해조신문》, 《대동공보》, 《대동신보》, 《대양보》, 《권업신문》, 《선봉》 등의 언론이 생성 소멸하면서 조선과 러시아, 이주한인들의 소식을 제공하고, 한인들에게 공동의 민족문제의식을 확산시켜나갔다. 이런 많은 단체와 언론이 블라디보스토크 한인들을 산발적 개인이 아닌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있었다.

한인 결속의 힘은 한인 내부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정체성은 '내적 자기 정의와 타자에 의한 구속, 즉 내적·외적 변증법'[16]이라 했듯이, 한인들을 규제하려는 외부세력의 작용 또한 한인들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었다. 일본은 한인을 불령선인 또는 배일선인이라 규정하고 항일운동가와 일반한인들의 동태를 낱낱이 감시, 보고하였다. 러시아는 때때로 한인들에게 금광과 어업 노동을 금지하고, 귀화를 요구했으며, 거주지를 제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한인들은 일제의 정탐과 탄압이 거셀수록 더욱더 단합하고, 러시아의 정책이 변할 때마다 공동의 대처법을 마련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블라디보스토크 이주한인들은 익명성과 이동성이 높은 도시에서 빠르게 러시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한인으로서 유연한 정체성을 유지해갔다.[17]

이주자들이 개별화된 곳에서는 학교설립이 어렵다. 그러나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한인네트워크가 발달되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독립운동기지이자 조선과 교류가 많았다는 점은 독립운동가들이 한인들에게 민족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그리고 정착 이주민과 정착촌의 존재는 교육을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물적 토대였다. 또한 러시아와 일제의 견제활동 역시 한인들의 학교설립에 영향을 미쳤다.

---

15) 《독립신문》, 1920년 3월 25일자, 3월 30일자; 《해조신문》, 1908년 5월 2일자; 《권업신문》, 1913년 1월 26일자, 4월 26일자.

16) 팀 에덴서, 『대중문화와 일상, 그리고 민족정체성』(이후, 2002), 68쪽.

17) 현규환, 앞의 책(1976), 886쪽.

III. 민족주의와 한인학교의 발흥

1905년 러일전쟁 패배 후, 블라디보스토크는 경제적 침체를 겪고 있었다. 러일전쟁의 승리로 일본인의 위상은 높아지고, 전쟁기간 동안 많은 중국인과 한인 노동자가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났다. 떠나는 이들이 있어도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여전히 아시아인들이 도시의 성격을 규정할 만큼 많았고, 소규모 상업과 농업에 널리 종사하고 있었다. 한편 을사늑약 이후 독립운동을 위해 항일운동가들이 국경을 넘기 시작하면서 블라디보스토크는 한인들에게 생계를 위한 노동장소로서뿐만 아니라 정치적 장소로서도 중요해졌다.

독립운동가들이 망명하기 전인 1901년부터 블라디보스토크 한인들은 학교설립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18], 본격적으로 한인의 민족적 정체성을 갖고 한인학교가 세워진 시기는 1905년 이후이다.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학교설립운동이 청년세대의 실력을 함양하는 길이고, 결국 실력함양이 독립을 전취할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1907-1908년 무렵 연해주 한인촌에는 민족주의 학교가 10여 개 설립되었다.[19] 그중 블라디보스토크가 연해주지역 가운데 한인 민족주의 학교를 처음 설립한 곳이다. 먼저 블라디보스토크에 계동학교와 대한학교가 설립되고, 이후 연해주 각지에 한인학교가 설립되었다. 한인학교 설립에는 여러 조직이 관여하였다. 《해조신문》이 적극적으로 신교육운동을 전개하고[20], 거류민회와 한인들이 재정을 부담했으며, 거류청년들이 동맹교육회를, 차석보 등이 한흥학회를 발기하여 교육의 중요성을 설파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은 학부모간친회를 조직하여 학교의 재정과 운영을 도왔다.[21] 이 시기 동안 블라디보스토크에 설립된 한인학교는 5개였다.

먼저 1907년에 계동학교, 세동학교, 신동학교[22]가 세워졌다. 계동학교

---

18) 1901년 일부 한인들이 주도하여 구한인촌에 러시아학교를 세웠고, 이 학교가 포크롭스키 교회의 교회학교와 통합되어 도시 관할로 이전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35. 러시아편 Ⅰ』(국사편찬위원회, 1997), 87-88쪽. 1903-1904년 이 학교에는 교사 1명, 학생 38명이 있었다[이병조, 앞의 논문(2008), 199쪽)].

19) 《해조신문》, 1908년 5월 3일자.

20) 김대용, 「해조신문의 교육론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8).

21) 《해조신문》, 1908년 4월 16일자, 5월 2일자, 5월 21일자.

22) 선행연구들(이명화, 1989; 이상근 1995)에는 계동·세동·신동 학교의 소재지가 신한촌

는 최재형, 한익성, 이동국, 김학만 등이 1907년 5월에 설립했으며, 학교설립취지서에서 국가위기의 순간에 무엇보다 청년자제를 계도하고 문명을 계발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3] 또한 계동학교는 학교로서 일정 규모도 갖추었고, 민족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갖추고 있었다.[24] 계동학교 설립자들은 일제침략의 야만성과 조국독립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학생들에게 조국의 말과 역사, 지리 등을 가르치고자 하였다. 설립자들만큼이나 학생들의 민족의식도 높았다. 학생들은 대한학교 학생들과 조선 상황을 주제로 연합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전명운·장인환을 위한 의연금을 자발적으로 모금하였다. 학생들은 국가를 잃은 민족으로서 '소학교 생도라도 사회상 일에 참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5] 계동학교 설립은 계동학교 구성원을 넘어 러시아 전체 한인들과 러시아학교를 다니는 한인학생들에게도 조국사상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26]

신동학교와 세동학교는 한인촌 내에 작은 가옥을 빌려 유지신사의 기부금이나 민간 의연금으로 학교를 운영하였다. 일본영사관 기록에 따르면, 계동학교와 세동학교, 신동학교를 합쳐 세 학교는 아동 약 250명을 수용하였다.[27] 세 학교 외에 동령보동학교와 대동학교가 있었다.[28]

으로 적혀 있는데, 당시 이 학교들은 구한인촌에 있었고, 1911년 통합된 한민학교가 신한촌으로 이전하였다. 그리고 이명화(1989)에 따르면, 블라디보스토크에는 계동(啓東)학교와 계동(啓童)학교 두 학교가 있다. 계동(啓東)학교가 한민학교로 통합된 학교이다. 계동(啓童)학교 관련 자료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1909년 연합운동회를 했다는 학교 중에 대동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 대한 자료도 발견하지 못했다. 한편 이상근(1995)은 논문 본문(485쪽)에서는 계동학교, 세동학교, 신동학교가 합병하여 한민학교를 만들었다고 해놓고, '표 노령지방 한인 교육 상황(1894-1921)'(475쪽)에서는 2개의 계동학교(啓東學校, 啓童學校)와 세동학교가 한민학교로 통합하였다고 표기하고 있다. 이는 다른 자료들을 고려할 때 표 내용이 잘못된 것이다.

23) 《황성신문》, 1907년 5월 29일자.

24) 1908년 계동학교에는 3개 반에 50여 명의 학생이 있었다. 교과목으로는 한문·한글·습자·산술·수신·체조·한국 지리·역사·러시아어가 있었고, 교사는 한국인 6명, 그 외 명예교사 약 11명이 있었다. 계동학교 교사들은 무보수로 일했고, 학교는 약 3천 루블의 적립금으로 학생들을 무료로 교육하였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5권: 독립군전투사(상)』(공훈전자사료관, 1973); 현규환, 앞의 책(1976), 874- 876쪽;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35-러시아편 Ⅰ』(국사편찬위원회, 1997), 87-88쪽.

25) 《해조신문》, 1908년 3월 24일자, 5월 1일자.

26) 《해조신문》, 1908년 4월 11일자.

27) 「當地韓人ノ近況報告ノ件(浦潮在留 韓國人ノ情勢)」, 1909.8.17, 국편제공.

28) 언론에서는 '동령에 있는 보동학교' 또는 한인촌 마을명을 따라 '동령학교'라고 표기하였다. 그리고 안중근재판기록(「伊藤博文 被擊事件 眞相調査及嫌疑者 搜査ニ關スル件」, 1910.1.17, 국편제공)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 한인학교가 3개라고 했는데, 《신한국보》(1909년 9월 7일자)에는 5, 6개 학교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1909년 6월 이 5개

한인학교들의 성격과 교육과정은 학교설립자나 교사, 사용한 교재들을 통해 짐작해볼 수 있다. 세동학교 설립에는 일본영사관에서 배일분자로 분류한 기산도(寄山道)가 관여했고[29], 세동학교 교장 리만원은 국민회 활동을 열심히 전개한 인물이었다.[30] 신동학교 설립에는 김시형, 김사윤, 최두형 등이 관여하였다. 그중 김사윤과 최두형은 학생들의 교재 마련을 책임지고, 해조신문사에서 서책을 다량으로 구입해 갔다. 당시 해조신문사에서 판매하는 교재는 차석보 등이 판매하는 책으로 민족주의적 내용이 담겨 있었다. 동령의 보동학교 역시 일본이 배일분자로 분류한 홍건표와 김오가 교사로 활동하였다. 그들은 교사 재직 당시 원산에 가서 민족주의적인 내용의 교과서를 구해 오기도 하였다.[31]

5개 학교 이외에도 러시아 선교사가 한인들을 대상으로 경영하는 대한학교가 있었다. 설립시기는 1907년으로 추정된다.[32] 대한학교는 블라디보스토크 도심과 구한인촌의 중간에 있는 학교로 러시아 정교회에서 운영하지만, 최만학 교감과 많은 한인의 의연금[33]으로 유지되었고 한인학생들이 다녔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학교는 일반적으로 한인학교로 인식되고 있었다. 러시아 정교학교들이 대체로 민족정체성을 강조하는 한인민족학교와 갈등을 겪었던 것[34]과는 달리, 대한학교는 민족주의 학교인 계동학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대한학교와 계동학교의 교사와 학생 모두 민족의식이 매우 높았고, 두 학교가 연합하여 건원절행사, 운동회, 매주 일요일 시사 토론회, 체조수업을 할 만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당시 블라디보스토크 지식인들은 학교의 교육내용에도 관심이 높았다. 그들은 1908년 조선에서 발표된 도서검정규칙이 한인정신을 말살하려는 일본의 교과서정책이라고 비판하였다. 특히《해조신문》에서는 2회 연속

학교(계동, 세동, 신동, 보동, 대동)의 연합운동회에 참가한 남녀 학생이 200여 명이었다.

29)「伊藤博文 被擊事件 眞相調査及嫌疑者 搜査ニ關スル件」, 1910.1.17, 국편제공.

30)《대동공보》, 1909년 10월 17일자.

31)《해조신문》, 1908년 5월 22일자;「朝鮮人近況報告ノ件(別紙, 安昌浩 春南里·學校設立, 演說 等)」, 1911.1.21.

32)《황성신문》, 1908년 4월 1일자;《해조신문》, 1908년 2월 26일자, 5월 6일자.

33) 마을회 소유 300원과 유지신사의연금 400원(《해조신문》, 1908년 4월 21일자)으로 학교가 설립되었고, 이후 지속적인 의연금 활동으로 학교가 유지된다.

34) 러시아 정교학교는 러시아어와 러시아 종교에 대해 가르치는 곳으로, 한인들에게는 귀화를 쉽게 하는 수단이며, 러시아 국가의 입장에서는 학교를 국가나 종교의 통제권 아래 둘 수 있는 방편이었다[이병조, 앞의 논문(20008), 190-193쪽].

으로 "학교의 정신은 교과서에 있다"는 사설을 실어 국어·역사·지리를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조선 상황을 비판하였다.[35] 이 비판은 다시 말해, 블라디보스토크 한인학교들은 국어·역사·지리 과목을 중시하며, 민족정신이 담긴 교과서를 사용하겠다는 표현이었다. 그래서 1908년 청년교육회장이자 한흥학회 발기인인 차석보는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교과서 인쇄회사를 인가받아 설립하였다. 여기서 발매 판매된 서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36]

『초등대한지지(初等大韓地誌)』, 『고등대한지지(高等大韓地誌)』, 『초등대한역사(初等大韓歷史)』, 『최신초등소학(最新初等小學)』, 『헌법학의(憲法學義)』, 『국가사상학(國家思想學)』, 『대한십삼도유람(大韓十三道遊覽)』, 『소박물학(小博物學)』, 『대한문전(大韓文典)』, 『연설법방(演說法方)』, 『국어문전(國語文典)』, 『초등수신(初等修身)』, 『대한신지지(大韓新地誌)』, 『물리학초보(物理學初步)』, 『잠업신편(蠶業新編)』, 『노동야학(勞動夜學)』, 『동국사략(東國史略)』, 『유년필독(幼年必讀)』, 『초등작문(初等作文)』 등

이 서적 가운데 『유년필독』, 『초등대한지지』, 『고등대한지지』, 『대한신지지』, 『국가사상학』 등은 조선총독부에서 압수한 민족주의적 내용의 책자였다.[37] 블라디보스토크 한인들은 이 책들을 공급하여 블라디보스토크와 인근지역 학생들을 교육하고자 하였다.[38]

이처럼 학교설립은 민족주의자에 의해서 민족주의적 목표에서 촉발되었다. 그래서 한인학교들은 서로 연계하여 연합운동회, 연합건원절행사 등을 개최했으며, 이런 행사에는 학생과 교직원은 물론, 인근 주민들까지 참여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연대하였다.

그러나 학교유지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학교유지에는 안정적인 재정지원책과 교사공급이 필요하다. 초기 한인학교들의 난관은 무엇보다 재정 문제였다. 안중근 재판 자료에 따르면, 블라디보스토크 한인들은 서로 모이면 국권회복을 부르짖었으나 계동학교를 유지하는 것도 매우

35) 《해조신문》, 1908년 5월 13일자, 5월 14일자.
36) 《해조신문》, 1908년 5월 12일자, 5월 21일자.
37) 《신한국보》, 1911년 1월 3일자.
38) 계동학교와 대한학교에서는 매달 월종시험, 보동학교에서는 연종시험을 실시하고 우등생을 언론에 공표하고 수상한 것으로 보아, 학교교육과정을 엄격하게 적용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곤란할 지경이었다.[39] 실제로 대한학교와 계동학교는 의연금으로 학교를 유지하면서 한인신문에 의연금 기부 관련 광고를 여러 차례 게재한다. 의연금에 의존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자발성에 기초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재정이 불안하다는 의미이다. 한인학교들의 또 한 가지 난관은 교사 문제였다. 블라디보스토크는 대도시라 다른 지역보다 사정이 나았으나, 그래도 신학문을 한 사람들이 적어서 교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또한 교사를 구했다 하더라도 교사와 지역사회 사이에 생기는 알력이 있었다.[40]

표2-1905-1909년 블라디보스토크 한인학교

학교명	소재지	설립-폐교 연도	경영 주체	교장 및 교사	학생 수	교과목 및 기타
계동(啓東) 학교 야학 운영	개척리	1907-1909. 한민학교로 통합	거류민회	• 한인교사: 6명, 명예교사: 11명 • 1908. 교장: 김학만, 감독: 김치보, 총무: 차석보 교사: 이현재, 체조교사: 김연상 • 1908. 교사: 조창용, 김연상, 김종철	• 7-8세에서 12, 13세 학생. 3개 반으로 구성됨. 40-50명 가량 • 1908 현재. 의연금 납부 학생 남 34명, 여 16명	한문, 한글, 습자, 산술, 수신, 체조, 한국 지리, 역사, 러시아어
세동(世東) 학교	석막동		주민 의연금	교장: 리만원		
신동(新東) 학교	피막동		주민 의연금	교장: 이상운 교감: 김사윤		서책 준비: 김사윤, 최두형 -해조신문사에서 서책 사감
대동학교		1909.6. 현존			1909.6.	
동령 보동학교 / 1909. 노동청년 야학교 부설	동령	1907, 1908-1917, 현존	동령 소재 주민	1909. 교장: 이병윤, 청년교육회회장: 강긔봉 1911. 홍건표, 김오	갑반, 을반, 병반 3개 반 30명	

39) 김은영, 앞의 논문(2009), 30쪽.
40) 《해조신문》, 1908년 4월 25일자.

표2-계속

대한(大韓)학교	한인촌	1907-1910. 이름 변경	정교교회 운영, 경비: 풍속 유재전 + 의연금	러시아 선교사 1908. 교감: 최만학, 일요일 연합체조수업: 김연상 찬무자: 이응익, 정교 1914. 오 와실리	1908.4. 3개 반 운영 (월종시험우등자 10명) 1908.5. 학도 30명 정교 입록 1910 현재. 약 80명	동국역사 10질 기부받음 (《해조신문》, 1908년 4월 21일자) 계동학교와 연합운동회, 연합건원절행사, 매주 일요일 연합토론회, 연합체조수업
야학	피막거리	1908.4. 현존 1909.2, 1914.5. 현존	1908. 피막거리 유지신사 설립/ 1909. 해삼위 공립협회	1909. 설립야학의 교사: 국한문 교사: 리홍긔, 오주혁, 러시아어 교사: 윤욱, 안스테반, 리수일, 영어교사: 김성무		국한문, 러시아어

IV. 러시아 동화주의 교육정책과 한인학교의 대응

러일전쟁 패배 후 블라디보스토크는 오히려 군사도시로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1910년 무렵 다시 경제가 활기를 띠게 되었다. 1911년 "러시아는 광활하고 분할되지 않았다"라는 슬로건 아래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를 연결했는데, 블라디보스토크는 그 출발역이었다. 이 당시 블라디보스토크 인구는 약 10만 명에 이르고, 도시에는 문제도 있었지만 기회가 넘쳐나고 있었다.[41] 한편 1911년 새로 부임한 곤다치 총독은 운테르베르게르 전임총독보다 한인에게 훨씬 우호적이었으며, 한인들의 사회, 교육, 문화, 실업활동을 적극 권장하였다. 비귀화한인은 일본이 러시아에 개입할 명분이 되기 때문에 배척했으나 귀화한인은 러시아의 정치경제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그들의 활동을 권장하였다.[42] 권업회 설립 후 3년 동안 회원수가 7천여 명으로 증가하고, 권업회에서 설립한 학교가 10여 곳, 학생 수가 천여 명에 달하였으며[43] 《권업신문》을 발행 배포하게 된 것도 당시 러시아 한인정책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이 관계는

41) William Richardson, "Vladivostok: City of three eras," *Planning Perspectives*, No. 10(1995).

42) 반병률, 「신한촌과 노령 한인사회」, 『근대독립운동사와 연해주 신한촌』(해외한민족연구소 학술대회, 1999), 6쪽.

43) 《권업신문》, 1914년 2월 8일자. 1914년 권업회 예산을 지출한 학교는 연해주 지역에 7개 학교이다.

오래가지 못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은 러시아와 일본을 동맹국으로 만들었다. 러시아는 일본의 요구에 따라 권업회와 《권업신문》을 폐쇄하고, 항일운동가들을 체포했으며, 조선어불온서적을 수거하였다.[44] 전시의 이러한 변화는 한인학교의 민족주의적 교육운동에 큰 위기로 작용했다.

1914년 이전에도 한인학교들은 러시아의 동화와 배제정책으로 몇 번의 곤란을 겪는다. 먼저 한인학교의 큰 변화 중 하나는 1909년에 있었던 인허가 없는 학교폐쇄 조치였다. 러시아 곳곳에서는 이주 초창기부터 허가 없는 한인학교들을 적발하고 폐쇄해왔다. 연해주 총독 운테르베르게르가 보기에 한인학교는 한인들의 러시아화를 방해하는 요소였기 때문이다. 이는 동화주의 교육정책의 실현이자 비동화적 대상은 배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러시아 학교가 있는 곳에도 한국 선생들이 있는 한국학교가 작용한다. 그런 현상이 이상하고 전혀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며, 그런 학교가 없어도 프리아무르스키 지역에 40년 동안 살고 있어도 우리한테는 고려인이 이분자로 남아 있고 고립된 한국 주민에게 큰 지지로 되니까 당신 각하(육군지사 플루구)께 그런 **한국학교를 전부 신속하게 금지시키는 것과 한국학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감독하여주는 것에 대해 명령하기를 부탁합니다.**[45]

이러한 운테르베르게르의 생각은 1909년 결국 인허가를 받지 않은 한인학교의 폐쇄조치 결정으로 이어졌다. 이 조치로 한인학교들은 학교 폐쇄의 위기 상황을 맞지만, 한인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도적으로 한인학교를 재편한다.

1909년 8월에 학교인허가정책이 알려지면서 한인들은 공동대응에 나섰다. 계동학교에서 각 소학교장, 학부모 등이 집회를 개최하고, 계동학교·세동학교·신동학교 세 학교를 합쳐서 거류민회 차원에서 한민학교를 연합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한인들은 학교유지를 위해 '해삼위 한인거류민의 교육비에 대한 입약서'를 만들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왕래하는 한인들, 거주하는 호주들, 취학아동의 학부형에게 일정 금액을 기부받아 재정을 마련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재정확보방안이 마련되고 학교규모

44) 최덕규, 『러시아국립극동역사문서보관소한인관련자료해제집』(고려학술문화재단, 2004).
45) 이계룡, 『고본지: 고려인들의 토지사랑, 터밭의 고려인 러시아 대지를 가꾸다』(행복한 집, 2003), 90-91쪽.

도 확대되자 블라디보스토크 시정부는 한민학교에 인허가를 내린다.[46]

학교폐지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학교확장과 교육비 분담 논의가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이다. 이종호는 1908년에 계동학교 발전방안을 《해조신문》에 설파한 적이 있다. 그는 교육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계동학교를 확장하고, 8세 이상 남녀 아이들은 의무입학을 시키되 입학시키지 않는 자는 벌금과 함께 국민의 자격을 상실시킬 것, 계동학교 내에 서적종람소와 야학을 설시하고, 곤궁한 동포를 도울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경비는 가구당 분담금으로 하자고 주장하였다.[47] 이종호의 주장처럼 세동학교와 신동학교는 계동학교와 합쳐 학교를 확장하고 주민분담금으로 운영경비를 마련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논의가 한인들 사이에 주도적으로 있어왔기에, 러시아의 학교폐쇄 조치에도 한인들은 학교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었다.

거류민회 차원에서 살려낸 한민학교는 1909년 10월에 개설하고 교장은 김학만이 맡았다. 교육과정은 심상소학과 고등소학 정도를 겸했으며, 러시아어 교사와 국한문 교사를 초빙하였다. 통합학교인 만큼 첫해 남녀학생이 총 81명으로 이전의 계동학교 학생보다 많이 증가하였다.[48]

다른 한인학교들이 한민학교로 통합된 후에도 동령의 학교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북서쪽의 신한촌과는 한참 떨어진 남동쪽의 동령에 소재한 보동학교는 러시아 인허가정책으로 거의 폐쇄 직전에 교장 이병윤이 정부와 교섭하여 겨우 학교를 유지할 수 있었다.[49]

학교재편 후, 또 다른 위기이자 새로운 전기는 1911년 구한인촌의 신한촌 강제이전이다. 19세기 말부터 진행되어온 한인 격리조치는 1911년 마침내 한인촌을 블라디보스토크 도심으로부터 분리하였다. 한인을 노동자로 부릴 수는 있어도 한 공간에 거주할 수는 없는 불편한 존재로 생각하고 배제하는 정치적 공간배치법 때문이었다. 그래서 도심의 러시아인들에게 신한촌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곳이었다.[50] 그러나 강제이주는 새로운 한인 공동체 역사의 시작이기도

---

46) 「當地韓人ノ近況報告ノ件(浦潮在留 韓國人ノ情勢)」, 1909.8.17, 국편제공; 《대동공보》, 1909년 9월 5일자, 9월 9일자.

47) 《해조신문》, 1908년 4월 2일자.

48)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1997), 87-88쪽; 한민학교의 자세한 사정은 정태수 논문(앞의 논문, 1991) 참조.

49) 《대동공보》, 1909년 8월 5일자.

하였다. 그곳에서 한인들은 마을 안의 학교와 교회를 무대로, 또는 마을 전체를 무대로 연합운동회, 단오제, 연극제 등을 하며 공동의 민족의식을 키워갔다.

신한촌으로 마을을 이전하면서 정교학교와 한민학교도 신한촌으로 옮겼다. 블라디보스토크 주교구 지도부는 신한촌에 건물을 지어 교회와 학교를 겸하게 하였다. 교회이전 비용은 최봉준과 러시아 정교회에서 기부하였다. 이 교회가 인노겐티 교회(이노켄체브스카야 교회)이고, 정교학교는 그 부속학교이다. 이 학교에 1912년 4월 카잔 교사양성학교를 졸업한 오 바실리가 교사로 임명된다. 1914년 학생은 60여 명이었다.[51]

한민학교는 마을 중심에 건립되었다. 그만큼 마을에서 학교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1911년 8월 신한촌민회와 이종호가 재정을 부담하여 건물신축에 착수하였다. 학교현관의 상부 좌우에 태극기를 조각해놓은 신축건물[52]은 적어도 100여 명 이상 학생을 수용할 수 있었다.[53] 한민학교는 초기에는 신한촌민회에서 운영하다가, 1914년 3월 신한촌민회와 권업회가 권업회로 통합되자 권업회 교육부 직속 학교로 바뀌었다.

1914년 남녀공학이었던 한민학교에 변화가 생겼다. 한민학교 여과 또는 한민여학교라 불리는 여자학교를 따로 설립한 일이다. 한민여학교는 신한촌의 자혜부인회와 대한여자단이 결합한 대한부인회가 주체가 되어 설립한 학교이다. 대한부인회는 한민학교의 강의실이 좁고, 남녀공동수업으로 여자 교육과정이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별개로 여학교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학교설립을 위해 주민들의 의연을 받았고, 학생수는 50여 명이 되었다.[54] 이로써 블라디보스토크에도 독자적인 여자학

---

50) 구한인촌은 도심과 겨우 2, 3町(약 200-300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도 도심왕래자는 이 지역을 볼 수 없었고(「伊藤博文 被擊事件 眞相調査及嫌疑者 搜査ニ關スル件」, 1910.1.17, 국편제공), 신한촌은 서울의 동소문처럼 아예 외따로 떨어진 곳이었다[이광수, 「그 당시의 追憶: 露領情景」, 『동광』 26호(1931)].

51)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권업신문, 대한인정교보, 청구신보, 한인신보 제2권』(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5), 29-30쪽; 이병조, 앞의 논문(2008), 184쪽.

52) 「明治44年8月1日以後 浦潮地方 朝鮮人動靜」, 1911.8.11, 국편제공; 「昨年冬季12月下旬浦潮朝鮮人ニ關スル諜報」, 1912.1.12, 국편제공.

53) 이명화(1989)에 따르면 "교장·교감을 비롯한 교사 26명을 확보하였"다고 하나, 1909년 학교 개설 당시 선발한 교사인원이 러시아어 교사와 국한문 교사 각각 1명이었고, 1912년 9월에 학교 임원 선정 때도 교장 포스타빈과 민장 김학만이 한문 교사 김하구, 러시아어 교사 강구리, 학감 이상설을 피임했다고 한다(《권업신문》, 1912년 9월 8일자). 이 자료에 근거할 때 한민학교 교사들이 26명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교사나 임원 등을 포함한 숫자이거나 과잉된 자료가 아닌가 한다.

교가 시작되었다.

한민학교와 한민여학교, 정교학교 모두 신한촌 마을로부터 영향을 받고 마을에 영향을 미쳤다. 세 학교는 신한촌민회·권업회·대한부인회·정교회에서 운영했으며, 주민들의 의연금을 받았다. 주민들은 학교행사 때나 우등상 수여식 때, 또는 수시로 교재에서부터 음식과 돈까지 매우 다양하게 학교에 기부하였다. 마을도 마을재정에서 기꺼이 학교운영비를 지출했고, 학비징수 범위를 논의하고 결정하였다.[55] 한편 신한촌 한인학교들은 신한촌의 정치문화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한인학교들은 모든 한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합운동회, 연극제 등을 개최하는 마을 공동의 행사장으로 사용되었다. 한인학교에서 벌이는 문화행사는 러시아를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민족적 요소를 강조하였다.[56]

그러나 1914년에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은 블라디보스토크 한인들에게 상당한 위기를 안겨주었다. 블라디보스토크에는 계엄령이 내려 집회가 금지되었으며 전시군법이 적용되었다. 또한 일본군과 동맹군이 된 러시아는 러시아 내의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을 심각하게 제약하였다. 권업회와 《권업신문》을 해체하고, 독립운동가들을 추방하였다.[57]

전쟁 상황 아래 러시아가 강력한 동화주의 정책을 실시하면서 한인의 민족주의적 교육활동도 크게 위축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교수용어의 제한이다. 1906년부터 법적('동부 및 남동 러시아 이종족민 소학교령')으로는 이민족 학교에서 이민족어로 2시간 동안 강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전쟁 이전의 한인학교들은 조선어로만 강의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으로 러시아는 1915년 민족언어를 금지하는 '문부성 소학교령'을 공포하고 교수용어를 러시아어로만 제한하였

54) 장성한 여자들을 위해서는 학문과 침공을 가르치는 특별과를 부설하였다. 《권업신문》, 1914년 4월 5일자, 6월 28일자; 「在外朝鮮人經營各學校書堂一覽表送付ニ關スル件」, 1916.12.28, 국편제공.

55) 신한촌민회 재정 중에는 학비소득과 학비지출금이 있다(《권업신문》, 1913년 3월 2일자, 7월 20일자, 8월 31일자, 10월 12일자, 10월 19일자). 그리고 1913년에는 매년 봄가을에 신한촌 방문객들에게 받던 학비와 청결비가 문제가 되었다. 신한촌에 방문객이 줄어든 것은 학비와 청결비 징수 때문이라며 학비폐지를 주장하는 쪽과 당장 폐지하면 학교유지에 문제가 생긴다고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다. 이 논의는 1913년 7월부터 시작하여 10월에 결국 방문객에게는 돈을 걷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학교 문제가 마을의 재정운영방식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했던 것이다.

56) 가령 1912년 한민학교에서 개최한 연극제를 보면, 러시아 풍속의 연극과 창가도 보여주고, 한인들의 국가도 부르는 식이다(《권업신문》, 1912년 11월 3일자).

57) 계봉우(1944), 「꿈 속의 꿈」 원고본, 한국독립운동사정보시스템(search.i815.or.kr) 제공.

다.[58] 따라서 1914년 3월까지만 해도 한인학교들은 조선의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었으나[59],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조선어와 조선어 교과서는 금지되었다. 고유의 말과 글이 사라진 공간에서 민족적 정신의 자유는 억압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에는 학교운영도 쉽지 않았다. 1914년 '연흑룡지방 한인이주 50주년 기념행사 조직위원회'의 결정사항 중 니콜스크 우수리스크에 학교를 설립한다는 안이 있었으나 전쟁으로 조직위원회가 사라졌으며, 학교설립안 역시 무산되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구라파전쟁으로 사회가 정지'됨에 따라 학교건물과 재정을 마련했던 한민여학교는 제대로 '경영을 일우지 못할' 정도였다.[60]

그리고 전쟁으로 각종 집회 등이 금지되면서 한인학교가 매년 실시하던 운동회와 각종 집회도 금지되었다. 그래서 이 시기의 한인학교사회에 대한 소식을 발견하기 어렵다. 《권업신문》이 폐지된 탓도 있지만, 한인학교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일본 측에도 이 시기 한인학교 관련 보고 자료가 거의 없다. 일본이 주목하는 한인학교의 활동이란 일상적 교육활동이 아니라, 학생과 지역민이 연대해서 민족주의적 행위를 하는 특별활동이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이 시기 한인학교의 교육은 교실 내의 교육으로만 그리고 러시아어 교육으로만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61]

1910년대 초중반에도 재정은 내내 학교를 괴롭히는 문제였다. 1910년 말 대한학교는 결국 재정곤란으로 더 이상 대한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62] 한민학교도 1910년과 1911년 초에 교장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해 러시아인 교장이 직무수행을 거절할 정도였다. 이 당시

---

58) 「鮮人學校組織改正二關スル件」, 1915.11.3, 국편제공. 1828년 '문부성소학교령'에서는 소수민족언어로 교육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1906년 발표된 '소학교령'에서는 수학연한을 4개년으로 하고, 제1, 2학년에 동 30시간 중 2시간만 민족고유어로 교수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 정책이 1915년 다시 문부성소학교령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59) 「營內 朝鮮人狀況調査書送付ノ件」, 1914.4.28, 국편제공.

60) 《한인신보》, 1917년 10월 7일자.

61) 러시아 측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혁명 이전(1916-1917년)에 블라디보스토크에는 2개의 한인학교에 3명의 교사, 123명의 학생이 있었다고 한다[국사편찬위원회, 『러시아 중앙아시아 한인의 역사(하)』(국사편찬위원회, 2008), 114쪽].

62) 대한학교는 1910년 말 무렵 경비 문제로 인하여 더 이상 '대한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폐기한다(「一月十三日以降 浦潮斯德地方朝鮮人動靜」, 1911.1.28, 국편제공). 이후 《권업신문》이나 다른 문건에서도 대한학교라는 명칭은 사라진다. 하지만 정교학교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 점에서 보건대, 경제난에 빠진 학교가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정교학교 또는 사원부속학교라는 명칭을 정식으로 사용한 듯하다.

학교는 폐교위기까지 직면하였고, 마을사람들의 불만은 높았다.[63] 그리고 1911년 마을 이전 전에도 휴교했는데, 이 역시 경제적 위기가 한 가지 원인이었다.[64]

표3-1909-1916년 블라디보스토크 한인학교

학교명	소재지	설립-폐교 연도	경영주체	교장 및 교사	학생 수	교과목 및 기타
한민(韓民)학교·한민학교 야학교 부설(1910)	신한촌 (1912. 봄 신한촌에 신축)	1909.10 -1922. 현존 1919. 시립학교 (러시아명 제28소학교)로 변경[65] 교수용어: 러시아어	1909. 거류민회, 1914년 거류민회와 권업회의 통합, 권업회 소속	한인교사 2명 모집 1912. 교장: 포스타빈, 학감: 이상설, 한문 교사: 김하구, 러시아어 교사: 강구리 1914. 강구리(강그레고리), 김진, 김하구 1910. 야학-교장: 고상준, 이상운, 교사: 김익용, 이민복, 서초정 1917. 남공선, 김철훈, 한용헌 1919. 교사: 한용헌, 오태국	1910 현재. 100여 명 1923. 자료: 교사, 학생 수 한정에 따라 한민학교를 본교로 하고, 백산학교와 동흥학교를 분리	4학년제, 3과(심상, 고등, 중학) 운영 1912. 기초: 성경, 윤리,국어, 외국어, 수학, 역사, 창가, 체육 1학년: 상업대요, 농업대요, 목축학, 경제학, 비료학, 회사법 2학년: 부기학, 식물학, 토양학, 동물학, 재배론, 기상학 3학년: 공업대요, 물리학, 임업대요, 어험(漁驗)법, 건축공학, 은행론 4학년: 화폐론, 화학, 광물학, 기계학, 전기학, 해상법, 부해양학(附海洋學) • 1914.3. 구한국시대 교과서 사용, 러시아 교육과정에 따름[66] • 1916. "노국소학교령에 기초함"[67]
한민(여)학교(여과)	신한촌	1914.9.	대한부인회 (자혜부인회+대한여자단)	김덕준 1922.10. 정학수 (함흥영생여자고보 출신)	50명 특과 설치 : 나이 든 여성 대상	"학문+침공"(대한부인회) 가정학 • 정학수-"상해에 도착한 각 지방, 각 단체 출신대표"(《독립신문》, 1922년 10월 30일자)
대한(大韓)학교	한인촌	1907-1908. 현존	정교교회	러시아 선교사 1908. 교감: 최만학, 체조수업: 김연상 (일요일 계동학생과) 찬무자: 이응익, 정교 1914. 오 와실리	1908.4. 3개 반 운영(월종시험 우등자 10명) 1908.5. 학도 30명 정교 입록 1910. 약 80명	계동학교와 연합운동회, 연합건원절행사, 매주 일요일 연합토론회, 연합체조수업
정교학교	신한촌	1911-1922. 현존	정교교회	그레프 徐	50명	한민학교와 연합운동회 및 연합행사

63)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1997), 87-88쪽.
64) 「五月十日以降 浦潮斯德地方朝鮮人動靜」, 1911.5.24, 국편제공.
65) 「浦潮在住朝鮮人に對スル教育上補助ノ件」, 『朝鮮統治史料』(韓國史料硏究所, 1971), 194쪽.
66) 「營內 朝鮮人狀況調査書送付ノ件」, 1914.4.28, 국편제공.
67) 「在外朝鮮人經營各學校書堂一覽表送付ニ 關スル件」, 1916.12.28, 국편제공.

표3-계속

(동령)보동학교 • 1909. 야학부설	동령	1907-1917. 현존	동령 소재 주민	1909. 교장: 이병윤, 청년교육회회장: 강기봉 1911. 홍건표, 김오	갑반, 을반, 병반 3개 반 30명	
보의(保義)학당[68]						보의학당의 실재에 대해서는 의문이다(각주 68 참조).

68) 朝鮮駐劄憲兵隊司令部가 1916년에 조사하여 작성하였다는 「在外朝鮮人經營各學校書堂一覽表(이하 一覽表)」(『現代史資料 27』, 1916.12, 141-170쪽)에 따르면, 보의학당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었다. 이 「一覽表」에는 개교와 폐교 시기가 없기 때문에, 보의학당이 언제 설립, 폐교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1916년 12월 이전 또는 1916년 12월 현재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었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이명화, 이상근)은 이 학교가 '보의학당'이 아니라 '보의학교'라는 명칭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었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의학당의 존재 여부(교사: 유문종, 계봉의, 문향, 학생 수: 80명, 교과목: 지리, 역사, 법학, 한문, 체조)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이 든다. 우선 한인언론에서나 일본 자료(해당 문건은 제외)에서 관련 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생 수가 80명에 이르면 매우 큰 학교인데도, 한인학교 소식을 상세히 다루었던 《해조신문》과 《권업신문》에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권업신문》이 폐간된 1914년 이후에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런 대규모의 한인학교 설립이 어려웠을 것이다. 한인신문 공백기에 학교가 있었다 해도, 일본영사관이 작성한 자료에서는 한인학교들을 매우 상세하게 다루는데, 일본 측 자료에서도 보의학당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리고 교사명단과 관련하여 살펴보자. 이 표가 들어 있는 원자료인 「在外朝鮮人經營各學校書堂一覽表送付ニ關スル件」(국편 소장)을 보면, 교사명단이 워낙 작은 글씨여서 정확히 읽을 수 없다. 그런데 이후 사료집으로 만들어진 『現代史資料 27-朝鮮 三』(韓國學振興院, 1984)에는 교사명단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교사명단에 '계봉의(桂鳳儀)', '문향(文鄕)', '육안립(郁安立)'이 있다. 이는 '계봉우(桂鳳瑀)', '문경(文卿, 文勁)', '정안립(鄭安立)'의 오자인 것 같다. 만약 계봉우와 문경, 정안립 등이 활약했다면 그들 각자의 역사에서 보의학당 기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계봉우는 자서전 『꿈속의 꿈』에 1911년부터 1913년까지 길동기독학당(중국 연길 소재)에서 김립과 문경이 함께 교사로 있었다고 적었다. 그리고 계봉우는 1914년 봄에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권업신문》 기자로 있다가 《권업신문》 해산과 러시아의 퇴거명령으로 그해 8월 다시 중국 하마탕으로 가서 소학교 교사로 지내다가 1916년 중국에서 체포된다. 따라서 그는 1916년 말 이전까지 학생이 80명이나 되는 학당을 블라디보스토크에 세울 시간이 없다. 그리고 김립과 정안립 역시 행적상 1916년 이전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학교를 설립하거나 교사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하지만 이 학교는 함께 근무한 사람들이나 가르친 교과(법학, 역사, 지리 등), 학생 수(100여 명)로 보건대 계봉우가 말한 길동기독학당이 아닌가 한다.

V. 러시아 혁명 후 혼재하는 한인학교들의 긴장관계

1917년 러시아 혁명, 1919년 3·1운동은 한인의 민족주의를 한껏 고양시켰다. 러시아 혁명 후 러시아정부도 이전의 강력한 동화정책 대신 이민족 포용정책을 실시하면서 소수민족의 민족주의를 허용하였다. 그리고 조선에서 시작된 3·1운동 역시 블라디보스토크 한인들에게 조국독립운동의 기운을 더욱 높여주었다. 3·1운동 전후하여 대한노인동맹단, 대한부인독립단, 그리고 각종 청년단체가 만들어져서 1919년에 블라디보스토크 각종 항일단체에 소속된 한인이 2천여 명이었다.[69]

한인들의 고양된 민족의식은 연해주 전역과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던 한인학교의 부흥을 일으킨다. 금지되었던 조선어와 조선어 교재가 허용되자[70], 하바롭스크에 있는 보문사에서는 조선어 교재를 인쇄했고, 1918년에는 한인사범학교도 운영하게 되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도 러시아 혁명의 기운으로 학교설립에 관한 논의를 하고[71], 시교육위원들이 학교 교사를 선출하고, 교과서를 새로 선정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러시아 혁명 후 신한촌의 한인학교들에서도 구체적인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우선 한민학교, 정교학교(교당학교), 삼일여학교 모두 조선어로 교육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한민학교와 정교학교는 조선어와 러시아어를 함께 가르치되, 한민학교는 조선어를, 정교학교는 러시아어를 주로 가르쳤다. 교육과정에도 변화가 있다. 1917년 9월《한인신보》기자가 세 학교를 관찰한 기사를 보면, 정교학교에서는 신라시대 박혁거세와 관련된 역사를 가르쳤으며, 한민학교에서는 매일 조선어 4시간, 러시아어 1시간, 그리고 산술과목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리고 삼일여학교에서는 조선어와 성경과목을 가르치고 있었다.[72]

집회개최가 가능해지면서 학교는 또다시 민족적 공동행사의 장이 되었다. 1917년에는 청년자조회와 학생단체가 공동으로 한민학교 앞 광장에서 한일병탄기념행사를 열고, 대규모 단군탄신기념행사에 교사와

---

69) 보리스박·니콜라이부가이 지음, 김광환·이백용 옮김,『러시아에서의 140년간: 재러한인 이주사』(시대정신, 2004), 170쪽.

70)《한인신보》, 1917년 9월 23일자.

71)「浦潮斯德 朝鮮人會二關スル件」, 1917.7.26, 국편제공.

72)《한인신보》, 1917년 9월 23일자, 9월 30일자, 11월 17일자.

학생이 참가하였다. 1919년 3·1운동, 1920년 독립선언기념집회 때는 교사와 학생들이 학교에서 직접 연극제를 열고, 주민들과 태극기를 들고 거리행진을 하였다.

그러나 러시아 혁명 반대의 명분으로 1918년 일본군이 러시아 극동지방에 주둔하면서, 일본은 한인의 민족주의 의식을 경계하고 한인들을 친일화하기 위한 정책을 노골화한다. 일본제국의회에서는 러시아 혁명 후 블라디보스토크 지역 내 '번성한 배일사상'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조선인을 선도하여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결정한다. 그 결과 1919년에 블라디보스토크 일본인회소학교와 연락하여, 철령사립육영학교에서 교원을 파견하고 조선인 아동의 교육을 시작하였다.[73]

일본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블라디보스토크에는 항일의 기운이 드높았는데, 한인사회를 바꾼 계기는 1920년 4월 신한촌 참변이었다. 일본은 마을을 수색하고 항일운동가들을 체포하고, 《한인신보》 사옥과 한민학교를 불태웠다. 참변 후 일본군은 친일성향의 민회를 설립하며 한인들을 회유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1921년 6월 제1강 인근마을 신흥촌에서는 촌장 안용술이 친일적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학교에서는 낮에는 한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일본어와 수신 과목을 가르치고, 밤에는 한인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일본어교육을 하였다.[74] 그리고 일제는 친일성향의 민회를 재조직하고 민회를 통해 학교에 개입하였다. 신한촌 동촌지역 민회를 일제의 관리하에 두었고, 이 민회에서 동흥학교를 설립하였다. 1921년 11월에는 한민학교·동흥학교·명의학교·동령학교 대표 등은 조선인교육회를 조직하여 조선총독부 발행 교과서 사용과 일본어 가용 교원파견 요청을 결의한 적도 있다.[75] 이 시기에 많은 학교가 친일 또는 비(非)항일적 성향을 나타냈다. 명의학교·명진학교·동흥학교가 일본으로부터 재정을 지원받고[76], 한인들 가운데는 자녀를 일본소학교에 보내는 이들도 생겨났다. 심지어 일본영사관에서는 한인아동들의 전 과목 성적까지도 일본에 보고할 정도로 한인교육에 민감하였

73) 朝鮮總督府 學務局, 『第五十一回 帝國議會說明資料』(朝鮮總督府, 1925).
74) 「鮮人ノ行動ニ關スル件」, 1921.6.15, 국편제공.
75) 「在露領朝鮮人民會等 親日團體ノ狀況」, 1922.12.12, 국편제공; 「朝鮮人教育會總會ノ狀況ニ關スル件」, 1922.1.21, 국편제공.
76) 《독립신문》, 1922년 9월 30일자, 「浦潮地方 鮮人小學校 維持費補助請願ニ關スル件」, 1921.8.15, 국편제공.

다.[77] 당시 이동휘의 지도하에 한인사회당 활동을 하던 류진규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한다.[78]

> 일군(日軍)들은 해삼위(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르쿠츠크 도시까지 차지하고 있었다. […] 조선총독부에서 출판하는 교과서를 조선학교에서 가져다가 아동들을 교양할 것을 강요했고 거류민회를 조직하여 헌병대와 연락을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후 조선인 교원 기타 청년들을 관광단이라고 모집하여 조선에 보내어 일본군대시설을 구경시키고 돌아와서 조선 인민들에게 선전하게 하고, 기타 수단으로 조선인들을 매수하려고 하였다. 결과 악명 높은 '대한국민의회' 기관지 『자유보』 주필이던 오창환은 아무르 주에서 연해주에 돌아와 소위 '교육협회'를 조직하고 조선총독부에서 금전과 교과서를 가져다가 조선학교를 일본화시켰고…….

이 시기에도 한민학교, 정교학교, 동령학교가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기존 학교 체제보다는 학교들이 훨씬 복잡해진다. 민족주의 또는 사회주의적 학교와 친일 또는 비항일적 성향의 학교가 있었으며, 종교학교도 정교학교 외에 기독교 계열의 삼일여학교와 백산학교가 설립되었다. 또한 운영체제로 보면 시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있고, 블라디보스토크시와 조선총독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학교가 공존하였다. 이 복잡한 체제는 블라디보스토크의 복잡한 사회정치 상황이 반영된 것이었다.

복잡한 사회체제는 한민학교 운영을 둘러싼 세력 간 상호 경계와 갈등에서 잘 드러난다. 학교방화 이후 일본은 한민학교 재건축 비용을 지원하여 한민학교 건물을 1922년 가을에 완공하였다. 일본이 재정지원한 이유는, 한민학교가 다시 블라디보스토크 시(市)경영이 되면 '조선인 아이들을 공산주의자 양성소가 될 학교에 넣는 격'이므로 학교의 시경영을 막기 위해서였다.[79] 그러나 한인들은 한민학교를 민회와 시경영으로 넘기지 않고 일본이 관리하는 학교가 되거나 조선총독부 보조학교가 된다면 학생을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하며 맞섰다.[80] 학교가 완공된 후, 1922년 말 시베리아 내전이 종결되어 일본이 철군하면

---

77) 「朝鮮兒童成績ニ關スル件」, 1921.1.12, 국편제공. 「블라디보스토크 일본심상·고등소학교 조선아동성적일람표」(1920.12)에는 한인학생 18명의 교과목별 성적과 총계, 평균, 조행을 적시하고 있다.

78) 류진규(1967), 「이동휘를 추억하면서」, 한국독립운동사정보시스템 제공.

79) 「浦潮市立小學校ノ學制變革ト之ト關聯スル 鮮人小學校問題二關スル私見進達ノ件」, 1920.9.14, 『朝鮮統治史料 第10券』(韓國史料硏究所, 1971), 145-148쪽.

80) 《독립신문》, 1922년 9월 30일자.

서 결국 학교는 민회와 시로 돌아갔다. 일본은 신축학교를 두고 떠나는 것을 못내 분통해했다.

또한 러시아의 학교정책을 일본은 예의주시하고 대책을 세운다. 가령 1920년 블라디보스토크 시교육위원회의 학교장 임명방식 결정에 대한 반응이 그렇다. 이 결정에 대해 일본은 시교육위원회의 결정이 현재 교장을 배척하고 공산주의 교장을 선출하기 위한 술책이며, 학생들을 공산주의화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한다. 그러면서 한민학교에 경비를 지원하고, 일본인소학교를 확충하여 조선인 아동을 입학시키는 방책을 모색한다.[81] 이렇게 일본의 황국신민화 교육은 러시아 땅의 한인들에게까지 파고들었다.

이와 같은 세력 간 긴장 상황에서 1917년 이후 한인학교의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많은 학교의 등장이다.[82] 기존 학교 이외에도 1917년도에 삼일여학교가 활동 중이었다.[83] 그리고 1920년 말 학생제한규정으로 한민학교를 본교로 하고, 동흥학교와 백산학교가 분리 설립된다.[84] 1921년 신한촌 내에만 삼일여학교, 한민학교(한민여학교), 해광학교(정교학교), 백산학교가 있었고, 교사 6명, 학생은 226명이었다.[85] 그리고 동령에 명진학교(明進學校, 1920.10), 마두애 지역에 명의학교(明義學校, 1919.8)가 설립된다.[86] 그래서 1922년《독립신문》에 따르면 블라디보스토크에

---

81) 「浦潮市立小學校ノ學制變革ト之ト關聯スル 鮮人小學校問題二關スル私見進達ノ件」, 1920.9.14; 韓國史料硏究所, 앞의 책(1971), 145-148쪽.

82) 일본영사관에서는 학교증가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러시아 혁명 후 러시아동화주의 교육철폐와 민족자결주의에 기반한 민족교육의 주장, 둘째, 3·1운동으로 민족교육의식 고취, 셋째, 마을의 교사집단 등장, 넷째, 일본군 주둔지역에서 일부 조선인 야심가나 야심적인 세력들이 공민회 학교를 설립하는 것, 다섯째, 일본이 재외조선인 회유를 목적으로 학교지원 및 민회설립학교 창설을 장려한 것, 이 다섯 가지가 학교증가의 이유라고 보았다(「浦潮地方 鮮人小學校 維持費補助 請願 關スル件」, 1921.8.15, 국편제공).

83) 선행연구들(이상근 등)에서는 삼일여학교의 설립시기를 1917년이라고 적시한다. 문제는 삼일여학교 교사를 지낸 김덕영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덕영은 자서전(김덕영,『한알의 겨자씨』, 휘경교회, 1964)에서 자신은 1911년에 최관흘 목사로부터 삼일여학교 선생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블라디보스토크에 갔다고 한다. 1917년《한인신보》에서 삼일여학교를 방문했을 때, 김덕영이 교사로 재직 중이었던 사실로 보아 삼일여학교가 1917년에 있었던 것은 명백하다. 김덕영 스스로도 삼일여학교 설립시기를 적시하지 않아서 설립시기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설립시기가 1917년 이전이라면, 신한촌의 여학교인 한민여학교와의 관계 또한 의문이다.

84) 동흥학교는 신한촌 내 동촌지역 동촌민회에서 설립한 학교이고, 백산학교는 오인환이 경영하는 학교였다. 「新韓村 鮮人小學校ノ露側 敎育展覽會」, 1923.7.9, 국편제공.

85)《독립신문》, 1919년 10월 16일자; 「鮮人ノ行動ニ關スル件」, 1921.1.12, 국편제공.

7개 학교 450여 명의 학생과 중학예비과정 30여 명의 학생이 있었다.[87]

그리고 이 시기에 한민학교(제28소학교)와 정교학교(제27소학교)가 블라디보스토크 시립학교로 전환한다.[88] 1918년 8월에는 신한촌민회에서 신한촌에 있는 사립여학교[89], 즉 한민여학교도 시립학교에 포함시킬 것을 블라디보스토크 시교육부에 요청하였다.

표4-신한촌민 여학교[90]

학생 수					공동과정	건물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난방비	교과서 문구류 비용	경비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합계					
35명	27명	23명	16명	101명	21	2,400루블	850루블	1,000루블	1명

한민학교와 한민여학교, 정교학교가 상징적인 민족주의 사립학교였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시립학교로의 전환은 큰 변화였다. 시립학교 전환은 러시아의 단일학교체제 속으로 외국인 학교를 편입시키려는 블라디보스토크 시정부의 입장[91]이었다. 그러나 시립학교라 해도 경비의 일부를 시와 국가로부터 보조받고, 실제로 민회가 한민학교에 더 많은 재정을 보조하고 관리하였다. 그래서 신한촌 참변 이후에도 한민학교는 여전히

---

86) 「浦潮地方 鮮人小學校 維持費補助 請願 關スル件」, 1921.8.15, 국편제공.

87) 《독립신문》, 1922년 9월 30일자.

88) 한민학교의 시(市)경영의 시기와 이유에 대해 문건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다. 1917년 블라디보스토크 일본영사관에서 작성한 문건(「朝鮮人ノ近狀二關シ報告ノ件」, 1917.8.31, 1917.10.12)에서는 1917년 한민학교와 정교학교를 시경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9월 9일 한인 시교육위원이 한인촌총회에서 학교경비 중 교사임금과 사택료를 시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한다. 《한인신보》(1917년 12월 9일자)에서도 "본촌 세 학교(한민학교, 정교학교, 삼일여학교) 중 삼일여학교는 우리의 힘으로 민회에서 유지하는바 경비가 항상 군졸"하다고 하여, 나머지 두 학교가 민회경영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 측의 자료(「Ф.28. Оп4, Д.24, Л.9」, 러시아국립극동역사문서보관소(РГИАДВ) 소장)에서도 소수민족들이 민족학교를 만들겠다는 신청에 대해 1917년 8월 12일 블라디보스토크 교육위원회에서는 한인학교를 시립학교로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新韓村 韓民學校再建築ニ關スル件(1920.6.3)」(『朝鮮統治史料』, 143쪽)에 따르면, 러시아가 3·1운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1919년 조선인 민회를 없애버리면서 민회경영이던 학교도 시립으로 바뀌었고, 학교이름도 개칭했다고 한다. 즉, 시립경영의 이유가 강제적이었다는 것이다(이명화의 연구는 1919년 시립학교 전환설을 따르고 있다).

89) 1915년부터 학생들(1915-1918년, 각 학생 수 89명, 67명, 75명, 101명)이 있었고 민회와 주민들이 세운 신한촌의 사립여학교라면, 한민여학교가 1914년에 학교건물을 구입하고 설립금을 모았다는 점에서 한민여학교로 추정된다.

90) 「Ф.28. Оп4, Д.2, Л.62-63.」, 러시아국립극동역사문서보관소(РГИАДВ) 소장.

91) 「Ф.28. Оп4, Д.24, Л.9.」, 러시아국립극동역사문서보관소(РГИАДВ) 소장.

한인 교사와 한인 자녀들이 다니는 민족주의적 또는 사회주의적 학교였다. 한민학교는 각종 민족주의적 행사들을 지속하면서 신한촌과 한인촌 사람들의 반일의식을 높여갔다. 교사진 역시 반일사상이 분명한 사람들이었다.[92] 학생들도 3·1운동 후 '대한동우결의부'를 조직하며, 민족주의 의지를 높였다.[93]

삼일여학교(장로교)와 백산학교(감리교)의 설립은 신한촌의 종교변화를 보여준다. 기존에는 신한촌에 정교학교만 있었다. 그러나 류진규에 따르면, 1918년에서 1920년 무렵 조선인 기독교인들이 연해주 각 도시에다 예수교 예배당과 교회학교를 설립하였다. 이 무렵 세워진 기독교학교인 삼일여학교와 백산학교는 민족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었다. 삼일여학교의 교사와 학생은 각종 반일행사에 적극 참여했으며, 교사는 허태화의 부인 김덕영(1917년), 이동휘의 자녀 이의순(1919년), 연해주 애국부인회 대표 윤보민(1922년) 등이 맡았다. 백산학교도 민족주의 활동에 참여하였다. 백산학교는 오인환이 설립하고 대한노인단의 김치보가 경영을 지원하였다.[94]

이 시기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한인학교들은 재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한민학교와 해광학교(정교학교)는 블라디보스토크 시경비를 지원받는데도 경비부족으로 석탄구입조차 어려울 지경이었다.[95] 그리고 명의학교, 명진학교, 동흥학교가 일본영사관에 재정지원을 요청한 이유도 학교건물비용과 재정적 어려움이었다. 또 하나의 난관은 급변하는 사회정치적 상황이었다. 학교를 중요한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생각한 각 국가에서는 한인학교를 흔들었다. 그때마다 교수용어와 교재와 교과내용이 달라졌다. 이런 정치 상황 변화가 학교의 자율성을 해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

92) 「不逞 朝鮮人ノ動靜ニ關スル件」, 1919.4.23, 국편제공; 「機密 第110號, 朝鮮人ニ關スル件」, 1919. 10.24, 국편 제공. 일본영사관에서는 1919년 한민학교 교사인 한용헌과 오태국을 배일자로 보고한 바 있다.

93) 「浦潮ノ不逞鮮人行動」, 1919.12.19, 국편제공.

94) 「鮮人ノ行動ニ關スル件」, 1921.1.12, 국편제공.

95) 「鮮人ノ行動ニ關スル件」, 1921.1.12, 국편제공.

표5-1917-1922년 블라디보스토크 한인학교

학교명	소재지	설립연도-폐교연도	경영주체	교장 및 교사	학생 수	교과목 및 기타
한민학교 (제28 소학교)[96]	신한촌 (1912. 봄 신한촌에 신축)	1909-1922 현존	1919. 블라디 보스토크 시립	1919. 한용헌, 오태국	1921 현재. 60명	1919. 시립경영 1920. 신한촌 참변으로 불탐 1920. 일본지원금으로 건물신축 1923 자료: 한민학교를 본교로 하고, 백산학교와 동흥학교 분리함
삼일여학교	신한촌 (예수교회 내)	1917-1922. 현존 1923. 폐교	장로파 교회	1917. 교감: 최주형, 교사: 김덕영 1919. 교장: 김종현, 교사: 이의순+남 1/ 신한촌 참변. 이의순, 채계복 1920.8. 교사: 우봉운, 김종현 1922.11. 윤보민	1917. 45명 1921. 여 89명	1917. 성경 등 1921. 예수교회 내 교사 4학년 편성, 과목: 습자, 수예, 산술, 조선어 한문 읽기 교육 등 + 유아교육
명의(明義) 학교	마두애	1919.8- 1923. 현존		교사 2명	1923. 41명 (남 29, 여 13)	
명진(明進) 학교[97]	동령	1920.10- 1921. 현존	동령 소재 주민			
동흥(東興) 학교	신한촌 니콜리스 카야 거리	1920.3 - 1922. 현존 • 한민학교에서 분리	신한촌동 구역민회	1920. 교사: 원봉천 (31세. 강원도생, 신한촌 거주, 월급 50엔)	30명	교사-이상원의 집, 교실 3개
백산(白山) 학교	신한촌 (私塾)	1920. 설립 1922.9. 현존 • 한민학교에서 분리	오인환 1921. 김치보 (노인단 경비)	남 1 1921. 오인근(무보수), 민흥식 외 1인	1921. 남 34명 1921. 70명 (일정제복 착용)	1921.1. 신년회-김치보 등 연설
해광(海光) 학교 (정교학교)	신한촌 (신한촌 부속 집)	1919.10. 현존	1921. 시행정부 보조 + 민회	남 1, 여 1(러시아인)	1921. 남 43명	러시아어 전문. 수(修), 한(漢), 산(算), 지(地), 역(歷), 리(理), 비(蜀), 체(体), 여자에게는 재봉가사를 부과

96) 「浦潮在住朝鮮人に對スル教育上補助ノ件」, 1920.12.17, 『朝鮮統治史料』(韓國史料研究所, 1971), 194쪽.

97) 동령보동학교는 1917년까지는 관련 기사가 있지만, 그 이후에는 발견하지 못했다. 1920년 동령지역 주민들이 동령지역에 명진학교를 설립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보동학교는 1918년과 1919년 사이에 폐교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5-계속

신흥촌 학교	신흥촌 (제1강 병기고 건물)	1921.6.1. 교육개시	신흥촌	안용술(신흥촌 촌장) 무보수	신흥촌 조선아동 남 9, 여 5, 러시아아동 4명, 총 18명	오전 9사-오후 4시: 일본어 독방, 수신 매일 저녁 7-9시: 조선인 노동자들에게 일본어 교수
영신학교		1922.9. 현존	남감리 교회			
중학예과		1922.9. 현존	교육회 경영		1922. 9 현재. 30여 명	

VI. 맺음말

블라디보스토크 한인들은 20세기 초반 복잡한 정치 상황 속에서 살았다. 그런 만큼 그들의 학교교육운동도 단순하지 않았다. 블라디보스토크의 권력자나 정책에 따라 부단하게 학교는 모양새를 바꾸거나 성격을 달리했다. 학교들은 만들어졌다가 사라지고, 또다시 만들어졌다. 블라디보스토크 한인학교들은 명멸의 역사를 겪었다. 변동의 역사는 한인학교들의 지형을 바꾸어놓았다. 러시아의 동화주의 교육정책은 한인학교들을 통합하도록 했으며, 전쟁 중 강력한 동화와 배제정책은 조선어와 조선어 교과서를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1905년 이래 민족주의 학교가 강세였던 지형이 1920년 신한촌 참변 후 친일 혹은 비항일적 학교가 수적 우위를 차지하는 지형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여자학교도 따로 분화되었으며, 정교 중심의 종교학교에서 탈피해 기독교 학교들도 만들어졌다. 블라디보스토크 한인학교의 이 같은 변화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블라디보스토크에는 한인학교가 설립될 만한 토양이 있었다. 설립의 토양에는 민족 내적으로는 한인마을, 민회·독립운동단체·종교단체·언론 등 다양한 한인네트워크, 항일민족주의자들이 있었고, 외적으로는 한인 민족주의자들을 경계하는 일본세력, 동화와 배제정책을 펼치는 러시아 세력이 있었다. 이 내적·외적 토양이 있었기 때문에, 한인학교가 설립되고 확산될 수 있었다.

둘째, 한인촌마다 한인학교가 설립되었다. 1921년 신한촌에는 이미 6개 학교가 세워졌다. 동령, 시와재, 마두애에도 학교가 있었다. 그만큼 생활공동체이자 민족공동체인 한인마을들은 한인학교 설립에 적극적이었다. 이는 한인들이 러시아 이주자이자 한인이라는 민족정체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바탕 위에서 현재와 미래를 설계하였다는 의미이다.

셋째, 경제적 난관에도 한인학교 설립과 유지는 면면히 이어졌다. 각 시기마다 경제적 난관이 존재하였으나, 의연금 모금이나 일시적 휴교 조치를 하더라도 한인학교들은 설립되고 유지되었다. 심지어 일본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도 학교는 버티었다. 이 점에서 한인들에게는 열악한 경비 문제를 뛰어넘는, 때로는 민족적 가치를 뛰어넘을 만큼의 교육열의가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한인학교의 설립과 폐교에는 정치적 이유가 크게 작용했다. 학교설립의 1차 시기는 1905년 항일운동가들의 이주 이후, 2차 시기는 러시아 혁명과 3·1운동 이후이다. 2차 시기에는 일본도 한인교육에 적극 개입하여 한인교육의 민족성을 비틀었다. 일본의 황민화 교육정책을 기반으로 한인학교를 지원하고 조선총독부 교과서를 배포하였다. 학교폐교에도 정치적 이유가 작동하였다. 러시아의 학교인허가제도 때문에 한인학교들은 통합했는데, 이것은 기존 학교의 폐교이기도 하다. 또 한 번의 폐교시기는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은 1923-19244년 무렵이다. 소비에트 정권은 학교정비를 위해 소수민족의 사립학교들은 폐교하였다. 이처럼 이국땅에서 소수민족학교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도 한인학교들이 설립, 유지되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사실이다. 민감한 정치상황에서도 한인학교들은 끊임없이 정치체제에 따라 변신하면서도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다. 한인들은 한인교육의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때로는 위기에 포박되면서도 교육의 가치, 즉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이주자와 자녀의 장래를 설계하는 가치는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섯째, 신한촌에 설립된 한인학교들은 블라디보스토크 한인학교의 변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초기 신한촌 한인학교들은 민족주의 교육활동과 민족주의 운동의 근거지가 되었다. 그런가하면 일본의 힘이 강할 때는 일본세력과 공모하거나 지원을 받는 학교들도 있었다. 한인학교들은 한편으로 항일, 다른 한편으로 친일 또는 비항일 양면성을 모두

지니고 있었다. 복잡한 정치변동으로 한인학교들은 이합집산했으며, 이합집산의 중심에는 언제나 한민학교가 한인학교들의 나침반이었다. 또한 한인들의 정치문화행동의 장을 제공하며 학교와 한인사회를 결속시켰다. 이 점에서 한민학교는 물리적 학교가 아니라, 한인들에게 문화적 모국이었던 셈이다.

이주자들이나 소수민족이 모두 민족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주자들이 일정 규모를 이룰 때, 이주지에서도 모국의 언어와 문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확신할 때, 또는 거주국가의 학교체계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교육에 접근하는 통로가 될 때 해외의 민족학교는 설립된다. 특히 모국이 심각한 민족적 위기에 처했을 때 민족학교는 그 힘을 더욱 크게 발휘한다. 세계에서 제국주의가 준동할 때마다 민족해방운동 과정에서 교육운동은 늘 동반되었다. 제국주의가 모국을 식민화했을 때, 해외의 민족교육은 민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의 발로이자, 식민지 해방을 위한 실력양성 투쟁이었다. 바로 블라디보스토크의 한인학교들은 식민지 조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의 표현이자 식민지 조선 해방을 위한 실력양성투쟁이었다.

표6-블라디보스토크 한인학교의 변동

<table>
<tr><td>1907, 1908</td><td>1909
러시아학교
인허가정책</td><td>1911
신한촌 이전</td><td>1914</td><td>1917
러시아 혁명</td><td>1919
3·1운동</td><td>1920
신한촌
참변</td><td>1921
러시아
단일학교령</td><td>1922.9.30.</td></tr>
<tr><td>대동학교</td><td>1909.6.
현존</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동령(보동)학교
(동령 소재)</td><td colspan="5">→</td><td>명진학교
(동령 소재,
1920.10.
신설)</td><td colspan="2">→</td></tr>
<tr><td>계동학교(한인촌 소재, 1907년 신설)</td><td rowspan="3">세 학교를 합쳐 한민학교 설립 (1909.10 신설, 한인촌 소재)</td><td rowspan="3">신한촌으로 이전 (5-8월 휴교)

1912년 신축건물</td><td rowspan="3">한민학교 남과

한민여학교 설립(신한촌 소재)</td><td colspan="2" rowspan="2">→
1917-1919 시립경영 전환 러시아 명칭. 제28소학교</td><td rowspan="3">일제에 의해 전소</td><td rowspan="3">그리스도교회 내에 있음</td><td rowspan="3">일제에 의해 학교신축, 블라디보스토크 시 소유가 됨</td></tr>
<tr><td>세동학교
(석막동)</td></tr>
<tr><td>신동학교
(피막동)</td><td colspan="2">한민학교 여과</td></tr>
<tr><td colspan="6"></td><td>동흥학교
(신한촌
동촌 소재,
1920.3.)</td><td>→
한민학교에서 분리</td><td></td></tr>
<tr><td colspan="7"></td><td>백산(白山)학교(신한촌 소재)</td><td>→
한민학교에서 분리</td></tr>
<tr><td>대한학교
(개척리와 시의 중간)</td><td>→
1910. 경비 문제로 대한학교 명칭 폐기</td><td>정교학교
(신한촌 소재)</td><td colspan="6">→
1921. 해광학교

1917-1919 시립경영 전환 러시아 명칭. 제27소학교</td></tr>
<tr><td colspan="4"></td><td>삼일여학교
(신한촌 소재)</td><td colspan="3">→</td><td>1923.
폐교상태</td></tr>
<tr><td colspan="5"></td><td>명의(明義)학교
(마두애 소재,
1919.8. 설립)</td><td colspan="2">→</td><td></td></tr>
<tr><td colspan="7"></td><td>신흥촌 한인학교(1921. 6 현존)</td><td>1922.10.
폐교상태</td></tr>
<tr><td colspan="8"></td><td>영신학교</td></tr>
<tr><td colspan="8"></td><td>중학예과</td></tr>
</table>

※ 출처 : 《권업신문》, 《해조신문》 등, 「在外朝鮮人經營學校書堂一覧表送付ニ關スル件」, 1916.12.28; 「浦潮地方鮮人小學校維持費補助請願ニ關スル件」, 1921.8.15; 「浦潮在住朝鮮人人口其他調査の報告の件」, 1923.8.11 등 본문의 문건류들; 이명화, 앞의 논문(1989); 이상근, 앞의 논문(1995) 등.

참 고 문 헌

《해조신문》, 《권업신문》, 《한인신보》, 《독립신문》, 《황성신문》, 《대동공보》, 《대한인정교보》 각 해당 일자.

「伊藤博文 被擊事件 眞相調査及嫌疑者 搜査ニ關スル件」 등 기타 일본 문건 자료: 국사편찬위원회(www.history.go.kr)가 제공하는 각 해당 문서들.

「Ф.28. Оп4, Д.2, Л.62-63.」, 「Ф.28. Оп4, Д.24, Л.9」: 러시아국립극동역사문서보관소(РГИАДВ) 소장.

계봉우, 「꿈 속의 꿈」. 원고본, 1944, 한국독립운동사정보시스템(search.i815.or.kr) 제공.

국사편찬위원회, 『러시아 중앙아시아 한인의 역사(하)』. 국사편찬위원회, 2008.

김덕룡, 『바람의 추억』. 선인, 2009.

김덕영, 『한알의 겨자씨』. 휘경교회, 1964.

김민남 외, 『간도의 삶과 교육』. 사람대사람, 2009.

류진규, 「이동휘를 추억하면서」. 1967, 한국독립운동사정보시스템 제공.

반병률, 「신한촌과 노령 한인사회」. 『근대독립운동사와 연해주 신한촌』, 해외한민족연구소 학술대회, 1999, 1-30쪽.

보리스 박·니콜라이 부가이 지음, 김광환·이백용 옮김, 『러시아에서의 140년간: 재러한인 이주사』. 시대정신, 2004.

비숍, I.B., 신복룡 옮김,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집문당, 2000.

이계룡, 『고본지: 고려인들의 토지사랑 터밭의 고려인 러시아 대지를 가꾸다』. 행복한 집, 2003.

이명화, 「노령지방에서의 한인민족주의 교육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집, 한국독립운동사연구회, 1989.

이병조, 「러시아 프리아무르 한인사회와 정교회 선교활동(1865-1916)」. 한국외국어대학 박사학위논문, 2008.

이상근, 「노령지역에 이주한 한인에 대한 교육」. 『사학지』 제28집, 단국대 사학회, 1995, 449-496쪽.

장은영,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한인 이주과정과 거주 특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정태수, 「망국 직후의 신한촌과 한민학교 연구」. 『한국교육사학』 13권, 한국교육사학회, 1991, 253-309쪽.

천경화, 「노령지역에서의 한국인 민족교육운동」. 『논문집』 제19집, 부천대학교, 1998, 7-41쪽.

최덕규, 『러시아 국립극동역사문서보관소 한인 관련 자료 해제집』. 고려학술문화재단, 2004.

팀 에덴서, 『대중문화와 일상, 그리고 민족정체성』. 이후, 2002.
현규환, 『한국유이민사(상)』, 삼화인쇄출판사, 1976.

朝鮮總督府 學務局, 『第五十一回 帝國議會說明資料』. 朝鮮總督府, 1925.
韓國史料硏究所, 『朝鮮統治史料 第10券』. 韓國史料硏究所, 1971.
韓國學振興院, 『現代史資料 27-朝鮮 三』. 韓國學振興院, 1984.
Habecker, David Eugene, "Ruling the east : russian urban administration and the chinese, koreans, and japanese in vladivostok, 1884-1922," University of Maryland, 2003.
Richardson, William, "Vladivostok: City of three eras," *Planning Perspectives*, No.10, 1995, pp.43-65.
Торопов, . А.А, 『Корей цы на россий ск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2』. Владив осток. 2004.

국 문 요 약

1900년대 초반 블라디보스토크는 러시아와 일본세력이 교차하는 국제도시이자 한인들의 독립운동기지였다. 당시 블라디보스토크에는 많은 한인학교들이 생성 소멸하였고, 학교의 변동에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의 영향력이 컸다. 한인학교는 3시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 시기는 1905년 이후 민족주의 기운이 높아지면서 한인학교들이 발흥한 때이다. 두 번째 시기는 러시아의 동화주의 교육정책으로 학교가 통폐합되고 전쟁 중 소수민족 언어가 금지된 때이다. 세 번째 시기는 러시아 혁명 후 민족주의 기운의 고양과 일본군의 주둔으로 일본의 교육개입이 이루어지던 때이다. 각 시기마다 블라디보스토크 한인학교들은 정치적 상황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학교를 설립하고 유지시켜 나갔다.

투고일 2010. 12. 20.
수정일 2011. 1. 28.
게재 확정일 2011. 2. 6.
주제어(keyword) 블라디보스토크 한인학교(korean schools in vladivostok), 신한촌(Sinhanchon), 민족주의학교운동(nationalism school movement), 한민학교(Hanmin school), 계동학교(GyuDong school)